

아테네 주요 관광지

2007. 5. 18

주그리스대사관

목 차

1.신타그마 광장 (Syntagma Square)-----	1
2. 아크로폴리스(Acropolis), 파르테논 신전(Parthenon)-----	3
3.국립고고학박물관(National Archaeological Museum) -----	6
4. 고대 아고라(Ancient Agora of Athens)-----	8
5-1. 제우스 신전(Olympian Zeus)-----	10
5-2. 아드리안의 문 (Arch of Hadrian)	
6. 케라미코스(Keramikos)-----	12
7. 리카비토스 언덕(Lykabittos Hill)-----	14
8. 참고사항 -유적지 및 박물관의 무료입장-----	15
9. 아테네 지하철 노선도-----	16

●아테네 주요 관광지

1.신타그마 광장 (Syntagma Square)

신타그마 광장은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시내중심에 내리는 관광객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다. 아테네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관광객들이 여행을 시작하는 곳이기도 하다. AMALIAS 거리를 사이로 서쪽 부분은 광장이고, 동쪽 부분이 “신타그마(Syntagma)라고 불리는 현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이다.

신타그마는 '헌법'이라는 뜻의 그리스 단어(ΣΥΝΤΑΓΜΑ)인데, 1843년 이곳에서 그리스 최초의 헌법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935년까지 왕궁으로 쓰이다가, 현재는 그리스 국회 의사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건물 사용 용도에는 소아시아에서 온 난민들을 위한 보호소로 쓰였던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



<신타그마 광장의 근위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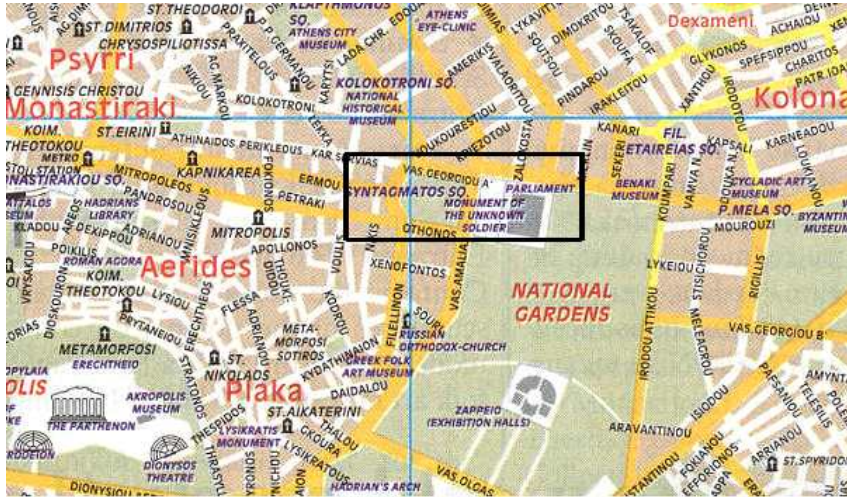
국회 의사당 앞마당에는 무명 용사의 묘가 있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들을 기리고 있으며, 묘의 오른쪽에는 한국전쟁 당시 그리스의 참전 사실을 알리기 위한 표시로 그리스어로 “KOPEA”라고 쓰여 있다. 또한 이곳은 전통 의상을 입은 인상적인 그리스 정예 보병(Evzones)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들은 짧은 칼트와 털공이 달린 신발의 그리스 전통 의상을 입은 근위병들이다. 한 여름에 작렬하는 태양아래서도 이들은 긴팔에 전통 의상을 입고 있어 여름에 땀에 젖어 있는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들의 인내심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들은 근무 시간 내내 돌처럼 굳은 얼굴과 부동의 자세로 서 있으며, 이들과 함께 사진 찍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짓궂은 관광객들은 가끔 제재를 받기도 한다. 또한 이곳에는 광장답게 많은 비둘기 떼가 모여 있으며, 비둘기 모이를 파는 장사꾼도 쉽게 볼 수 있다.

매 정시에는 교대 근위병이 바실리아 소피아스 거리를 행군해 와서는 근위병 교대식을 치르는데 이들을 보고 있노라니 영국 버킹엄 궁전의 근위병 모습이 연상된다. 또한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는 평상시와는 다른 조금 더 큰 규모의 군악대와 함께하는 근위 교대식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신타그마 일대는 아테네 시내의 중심지답게 정부 부처 및 고급 상점가, 호텔 등이 소재해 있다. 특히 신타그마 건너편에 위치한 호텔 ‘Grande Bretagne’은 세계 100대 호텔 안에 꼽히는 호텔로, 그리스를 방문하는 고위관료들을 위해 세워졌으며, 현재도 많은 외국 국가 원수 및 정상들의 그리스 방문 시에도 숙소로 이용되고 있다.

*가는 방법 : 공항에서 X95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하차, 또는 공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SYNTAGMA'역 에서 하차.



2. 아크로폴리스(Acropolis)

○주소 : Dionissiou Areopagitou st. Acropolis

그리스 아테네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아테네 시내에 들어서서 첫 발을 내디딘 후 보게 되는 것, 또한 처음 찾는 유적지가 아크로폴리스일 것이다.

아크로폴리스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방어를 목적으로 도시 중심지역 곳곳에 세워졌는데, 방어를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건설되었다. 요즘 일컫는 아크로폴리스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

아크로폴리스의 ‘acro’는 ‘높은’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형용사이고, ‘polis’는 ‘도시’라는 뜻의 그리스어 명사에서 유래되어 아크로폴리스란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아크로폴리스 위에는 각 폴리스의 수호신 등을 모시는 여러 신전이 세워져 도시국가의 신앙 중심지가 되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는 페이시스트라토스¹⁾, 페리클레스²⁾ 시대를 지나면서 파르테논 등의 신전이 세워졌다.

아크로폴리스는 서쪽을 제외하곤 모두 가파른 절벽이라 대부분의 관광객이 서쪽 입구를 따라 오르게 된다. 관광객들이 서쪽 입구를 따라 아크로폴리스를 오르면서 파르테논으로 가기위해 지나가야 하는 곳이 ‘프로필레아 문’인데, 이는 ‘성스러운 건물로 향하는 입구’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 문을 통과하면 신전이 보이기 시작한다.



<니케 신전>

프로필레아 문의 오른쪽으로는 승리의 여신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아테나 니케신전(Temple of Athena Nike)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서 ‘니케’란 그리스어로 ‘승리’를 의미하며, 세계적인 스포츠 회사인 ‘나이키(NIKE)’의 명칭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니케 신전 주위에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모습을 담은 조각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영박물관과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아크로폴리스의 북쪽 편에 위치한 에렉테이온 신전은 얼핏 보아도 다른 신전과는 달리 우아하면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신성한 자리에 세워져 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에렉테이온 신전의 자리가 현재의 아테네의 수호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아테나와 포세이돈이 경쟁을 하였던 곳인데, 포세이돈은 삼지창으로 땅을 내리쳐 샘물을 만들고,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만들어 내어 아테네인들에게 더 유용한 것을 제공하여 승리하였다고 한다.

1) 페이시스트라토스

기원전 6세기의 인물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가로 쿠데타로 참주가 된 뒤, 농업중심의 안정적인 정책을 펼쳤으며, 아테네 번영의 기반을 닦아 위상을 높였던 인물이다.

2) 페리클레스

기원전 4세기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로 뛰어난 웅변술을 지녔으며,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하는 등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에렉테이온 신전은 아름다운 여인상 기둥으로 유명한데 여인상의 옷 주름 하나하나까지도 세세하게



<에렉테이온 신전의 여인상 기둥>

표현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머리에 향아리를 들고 있는 여인상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제우스가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에 대해 물었을 때, 여사제들은 페르시아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아테네의 승리로 끝나 그 벌로 인해 향아리를 얹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파르테논신전(Parthenon)

그리스에 온 관광객이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 아크로폴리스라면 파르테논 신전 때문일 것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1호인 파르테논 신전은 '처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인데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 신을 모시기 위해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지어졌다고 한다.



<파르테논신전>

이 파르테논 신전은 두 가지 목적에 의해 지어졌다고 하는데, 하나는 페리클레스에 의해 아테네의 수호신 아테나 여신을 모시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델로스로부터 가져온 조공품 들을 보관하기 위한 국고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원래의 아테나 신전이 파괴되어 전쟁 후 현재의 신전이 지어졌으나, 1687년 파르테논 신전 안에 있던 터키군의 탄약 임시 보관소가 베네치아군의 폭격으로 폭발하는 바람에 신전과 안에 있던 조각품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때의 피해로 파르테논의 상단부를 장식하고 있던 프리즈³⁾의 상당부분이 파괴되었는데 남아있는 것 중 가장 큰 부분은 1801년 영국의 엘긴(Elgin)경이 대영박물관에 팔아 현재 그곳에 전시중이다.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건축 양식의 하나인 도리아 양식⁴⁾ 신전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신전의 양 끝에 각 8개의 도리아 식 기둥이 있고, 각 면에는 17개의 기둥이 오묘하게 기울어져 착시 현상을 일으키며 조화롭고 완벽한 형태를 만들어낸다.

3) 프리즈(ferize)

건축물의 외부 벽면 등에 띠 모양으로 장식된 부분.

4) 도리아 양식 (Doric Style)

그리스 고전 건축양식 중(이오니아 양식, 코린트 양식)의 하나로 가장 오래된 양식이며, 기둥이 굵으며 남성적인 느낌을 주는데 기둥의 머리 부분이 꼭 만두모양을 연상케 한다. 주로 도리스(도리아)인이 살던 펠로폰네소스반도에서 시작되어 본토 각지 및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등지에 전파되었다. 도리스 양식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이며, 이 밖에 코린트의 아폴론신전,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파르테논신전은 지붕을 제외하곤 대리석만을 사용하여 지은 유일한 신전이며, 천장에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별모양의 금박장식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가격

*스페셜 패키지 티켓(유효기간 일주일) : 일반: €12, 할인: €6(국제학생증 소지자)

-스페셜 패키지 티켓은 아크로폴리스 및 박물관, 케라미코스 및 박물관, 고대 아고라 및 박물관, 로마 아고라, 제우스 신전을 모두 방문할 수 있음.

*(아크로폴리스만 방문할 경우) 일반 4€, 할인 2€(국제학생증 소지자)

○개방시간

겨울(11월1일-3월31일)

08:00 - 17.00

여름(4월1일-10월 31일)

08:00 - 19:30

○휴무일

1월1일 신정

3월25일 그리스 독립기념일

부활절(매년변동)

5월1일 노동절

12월25-26일 크리스마스

○가는 방법: 지하철 Acropolis 역에서 하차.



3.국립고고학박물관(National Archaeological Museum)

○주소: 28 Oktovriou-Patission 44



<국립고고학박물관 전경>

시대의 유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 역사에 있어 중요한 도자기들과 프레스코화, 보석, 조각과 부조등은 1층에 전시되어 있고, 2층에는 도기와 산토리니 섬에서 발굴한 벽화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미케네의 유적 발굴품이 주를 이루는 제4실에는 솔리만과 그의 제자들의 발굴품 등을 중심으로 황금 장신구, 액세서리, 청동 단검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 ‘아가멤논의 황금가면’이라 불리는 유물을 놓치지 말고 보기 바란다.

아가멤논의 황금가면(Mask of Agamemnon)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은 동생 메넬라오스의 아내인 헬레나로 인해 일어난 트로이 전쟁의 총 지휘관이었던 인물이다.

1876년 하인리히 솔리만에 의해 미케네의 원형 무덤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금으로 된 장례식용 가면이라고 한다. 현대의 고고학 추정기술에 의하면 이것이 아가멤논의 것이 아니고 훨씬 이전 시대 왕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이 아가멤논의 것이라고 믿고 있다.

국립 고고학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물인 만큼 관광객이 많이 몰릴 때에는 가까이에서 보기조차 힘들다.



<아가멤논의 황금마스크>

○가격: 일반 €7 학생 €3(국제학생증 소지자)

○개방시간

겨울(11월1일-3월31일)

08:00 - 17:00

여름(4월1일-10월 31일)

08:00 - 19:30

○휴무일

1월1일 신정

3월25일 그리스 독립기념일

부활절(매년변동)

5월1일 노동절

12월25-26일 크리스마스

○가는 방법 : 지하철 Omonia 역에서 하차



4. 고대 아고라(Ancient Agora of Athens)

○주소 : Adrianou 24, Monastiraki

아크로폴리스 정상에서 주위를 빙 둘러보면 북서쪽 방향에 위치한 아고라 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늘 한곳 없는 아크로폴리스관광을 끝내고 다음 방문지로 아고라를 찾게 되는데 잠시나마 아고라의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쉬는 관광객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에서 가장 잘 보존된 아고라는 고대 도시의 삶에 대해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고라는 고대 아테네 시민의 정치적, 상업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을 모두 포함한 아테네 중심지로 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소크라테스가 그의 철학을 논하던 곳도 여기였으며, 기원후 49년 사도 바울이 기독교 복음을 전한 곳도 이곳이다.

이곳은 일찍이 기원전 3000 년 전부터 사용되었으며, 기원전 6세기 솔론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아테네의 중심 지역으로써의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480년부터 페르시아인과 로마인 등에게 파괴되었으나, 기원후 267년부터 개축되어 기원후 580년까지 번창하며 지금의 직사각형 구조에 도달하게 되었다.

○ 아탈로스 (Stoa of attal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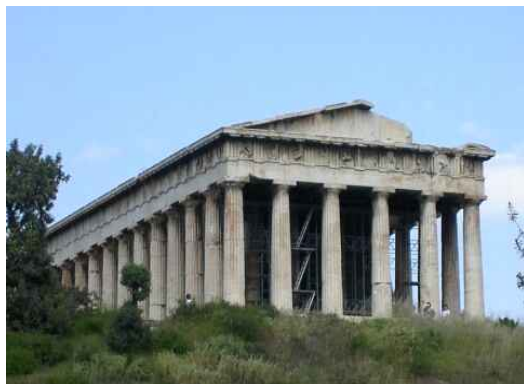
고대 아고라 광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 중의 하나가 아탈로스 스토아이다.

페르가몬 아탈로스 2세 왕의 이름을 따서 헬레니즘 시대에 지어졌으며 이 건물은 페르가몬가(家)의 교육을 위해 지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학문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파괴되었던 건물을 1952년에 복원하여 현재는 고대 아고라의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탈로스의 복도>

아고라 박물관에 복원된 복도는 기둥이 45개에 달하며, 2층으로 구성되어 기원후 아고라가 번창했을 당시 부유한 상류층을 위한 쇼핑과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헤파이스토스 신전>

○헤파이토스 신전 (Temple of Hephaestus)

서쪽 끝에 있는 헤파이스토스 신전은 기원전 449년에 세워졌으며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그리스 신전중의 하나이지만 근처 파르테논 신전으로 인해 그 명성이 널리 퍼지진 못했다. 대부분의 관광객이 파르테논 신전의 파괴되고, 복원중인 모습을 본 후 이곳 아고라의 헤파이스토스 신전을 보고 있노라면 새삼 새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파르테논신전에 비해 헤파이스토스 신전은 기둥의 대부분이 남아 있고 지붕 또한 거의 원형 그대로 복원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수세기 동안의 전쟁과 약탈로 인해 파괴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신전에서 볼 수 없었던 ‘신전’이라는 건물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헤파이스토스 신전은 때때로 ‘티시온’이라고도 불리 우는데 그 이유는 이곳 헤파이스토스 신전에 그리스의 영웅 테세우스⁵⁾(그리스어: Θησεῖο, Theseio)의 뼈가 묻혀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테세우스의 뼈는 기원전 5세기에 근처인 아크로폴리스에 묻혀있다.

이 신전은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스토스에게 바쳐진 것이며 주물공장과 금속 공예점에 둘러싸여 있고, 오트만 제국 시대에는 아테네에서 그리스 정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었다.

○가격:

*스페셜 패키지 티켓(유효기간 일주일) : 일반: €12, 할인: €6(국제학생증 소지자)

-스페셜 패키지 티켓은 아크로폴리스 및 박물관, 케라미코스 및 박물관, 고대 아고라 및 박물관, 로마 아고라,제우스 신전을 모두 방문할 수 있다.

*(고대 아고라만 방문할 경우) 일반 4€, 할인 2€(국제학생증 소지자)

○개방시간

겨울(11월1일-3월31일)

08:00 - 17:00

여름(4월1일-10월 31일)

08:00 - 19:30

○휴무일

1월1일 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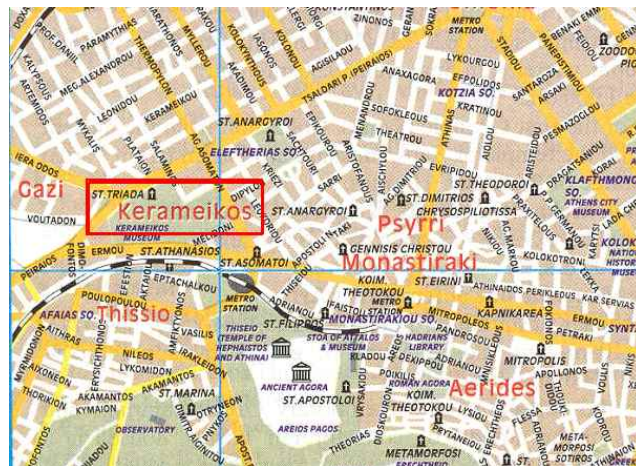
3월25일 그리스 독립기념일
부활절(매년변동)

5월1일 노동절

12월25-26일 크리스마스

*가는 방법:

지하철 Thissio 역 or
Monastiraki 역에서 하차



5) 테세우스

그리스 신화 속에서 크레타 섬의 미궁에서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아테네의 영웅이 된 인물.

5-1. 제우스 신전(Olympian Zeus)

○주소 : Vassilisis Olgas Str. Athens



<제우스 신전>

제우스 신전은 그리스에서 최대의 규모이며, 코린트 양식⁶⁾의 기둥은 17m 높이에 2.6m의 지름에 달한다. 처음 지어질 당시에는 104개의 기둥이 존재해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웅장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1852년 강풍에 의해 쓰러진 1개의 기둥을 포함해 16개의 기둥만이 존재하고 있다.



<코린트 양식>

한 여름 제우스 신전에서는 그늘을 찾아보기 힘들고, 단체관광객들이 많아 불편함이 많을 것이니 가급적 개장 시간에 맞추어 아침 일찍 둘러볼 것을 권한다.

5-2. 아드리안의 문 (Arch of Hadrian)



<아드리안의 문>

제우스 신전(Olympian Zeus)을 보다보면 신전 서쪽 방향으로 아치형의 문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옛 아테네 거리와 새 아테네 거리의 경계로 기원 후 2세기 아드리안 황제의 명예와 은혜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그러나 아테네 시민이나 다른 그리스인이 건축하고 디자인 했을 거라고는 추측하고 있지만, 누가 이 문의 건축을 의뢰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고대 아테네와 로마시대의 아테네와의 경계를 표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문의 북서쪽에는 “여기는 테세우스의 고대 도시 아테네입니다.”(ΑΙΔΕΙΣ ΑΘΗΝΑΙ ΘΗΣΕΥΣ Η ΠΡΙΝ ΠΟΛΙΣ)라고 새겨져 있고, 반대쪽에는 “여기는 테세우스가 아닌 아드리안의 도시입니다.”(ΑΙΔΕΙΣ ΑΔΡΙΑΝΟΥ ΚΟΥΧΙ ΘΗΣΕΥΣ ΠΟΛΙΣ) 라고 쓰여 있으니 한번 찾아봄직 하다.

6)코린트 양식 (Corinthian style)

알렉산더 제국 시대 이후 생기기 시작한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건축양식으로 머리 부분 모양이 잎사귀를 묶어 놓은 것처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 다른 양식에 비해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코린트라는 이름은 당시 지중해 연안의 교역으로 부유한 그리스 도시국가 ‘코린트’ 지명에서 유래된 것이다.

○가격

*스페셜 패키지 티켓(유효기간 일주일) : 일반: €12, 할인: €6(국제학생증 소지자)

-스페셜 패키지 티켓은 아크로폴리스 및 박물관, 케라미코스 및 박물관, 고대 아고라 및 박물관, 로마 아고라, 제우스 신전 모두 방문할 수 있음.

*(케라미코스만 방문할 경우) 일반 2€,

○개방시간

겨울(11월1일-3월31일)

08:00 - 17:00

여름(4월1일-10월 31일)

08:00 - 19:30

○휴무일

1월1일 신정

3월25일 그리스 독립기념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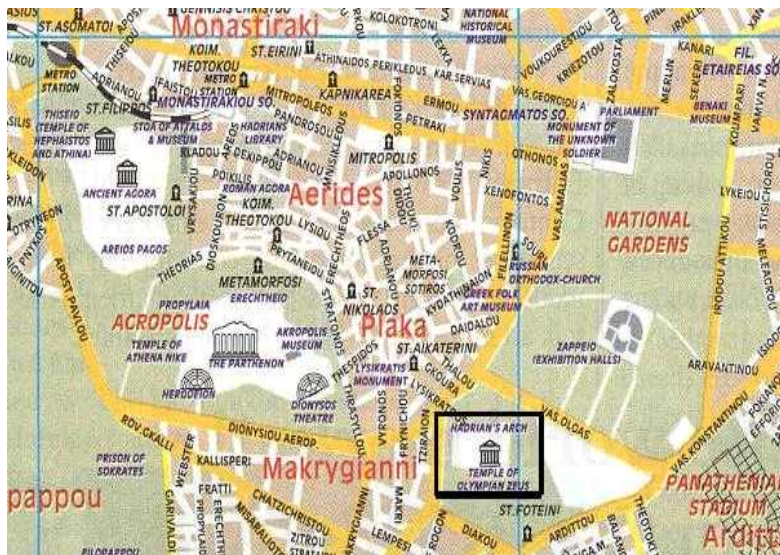
부활절(매년변동)

5월1일 노동절

12월25-26일 크리스마스

○가는 방법 :

SYNTAGMA 광장에서 NATIONAL GARDEN을 따라 남쪽으로 약 1KM 정도에 위치



6. 케라미코스(Keramikos)

○주소 : 148 Ermou St. Athens

아테네의 도심 속에서 잠시나마 조용히 관광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곳이다.

케라미코스는 기원전 6000년 전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그리스인들이 묻힌 곳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공동묘지로서는 가장 크고 잘 보존된 곳이다. Eridanos 강둑을 따라 이어진 이곳은 그 당시 이 지역 전체 사회를 점유하고 있었던 도공 'Kerameis'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한다.



이 곳 근처에는 아테네에서 가장 큰 도시문인 '디필론의 문'이 서 있었던 장소가 있는데, 이 문의 바깥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공동묘지인 'Keramikos'라고 한다. 이 문은 행렬이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 고대 아고라를 경유하여 아크로폴리스로 가는 길에 통과하던 곳이며, 또한 순례자들이 엘레우시스로 가기위해 성스러운 길을 여행했던 'IERA ODOS'가 시작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아테네 지하철 공사 중, 이곳에서 기원전 4~5세기에 전염병이 유행했음을 증명해주는 구덩이와 이로 인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1000여개의 묘지가 발견되었다.

또한 이곳의 가장 중요한 유물 중의 하나인 디필론의 화병을 눈여겨 볼만한데, 이 화병은 그리스인들이 장례식 때 묘지 옆에 가족의 무덤을 표시하게 위해 두었던 것으로 현재 묘지 옆에 있는 것은 복제품이고, 진품은 케라미코스 내에 있는 박물관 안에 무덤에서 발견된 다른 부장품 등과 함께 소장되어 있다.

○가격

*스페셜 패키지 티켓(유효기간 일주일) : 일반: €12, 할인: €6(국제학생증 소지자)

-스페셜 패키지 티켓은 아크로폴리스 및 박물관, 케라미코스 및 박물관, 고대 아고라 및 박물관, 로마 아고라, 제우스 신전을 모두 방문할 수 있음.

*(케라미코스만 방문할 경우) 일반 4€, 할인 2€(국제학생증 소지자)

○ 개방시간

겨울(11월1일-3월31일)

08:00 - 17:00

여름(4월1일-10월 31일)

08:00 - 19:30

○휴무일

1월1일 신정

3월25일 그리스 독립기념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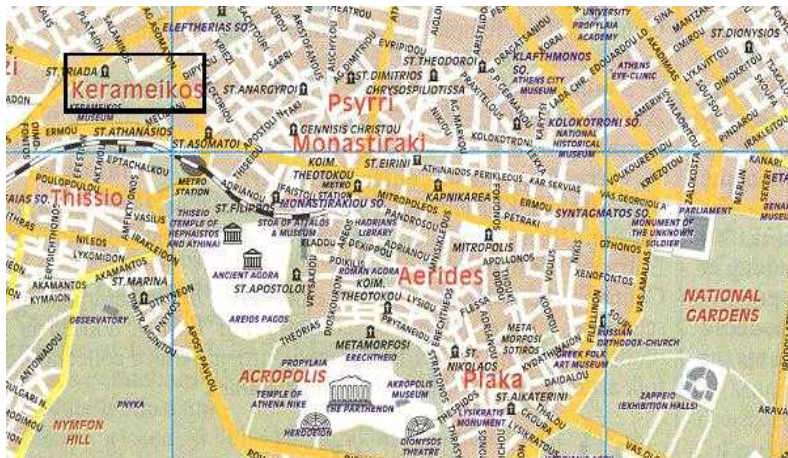
부활절(매년변동)

5월1일 노동절

12월25-26일 크리스마스

○가는 방법 :

지하철 Thissio 역에서 하차.



7. 리카비토스 언덕(Lykabittos Hill)

위치: Aristippou와 Ploutarhou의 교차지점

이 언덕은 ‘늑대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272m까지 뻗어 있는 험한 바위산으로 곧게 치솟아 오르는 언덕은 아크로폴리스와 함께 아테네 중심부를 내려다보는 두 개의 언덕 중 하나이다.

맑게 갠 날에는 꼭대기에서 에기나 섬과 펠로폰네소스까지도 볼 수 있으며, 해질녘 리카비토스 언덕에서의 야경 감상과 노천극장에서의 여름 콘서트 및 연극 등도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

리카비토스 언덕은 멀리서 보면 뾰족하지만 언덕 꼭대기에는 백색의 성 조지 예배당 (Chapel of Agios Georgios)이 있는데 원래는 이곳에 비잔틴 양식의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 아테네 시내에서 보던 교회와는 달리 아담하고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곳은 한 때 제우스에게 바쳐진 고대 신전이 있던 장소다. 밤에는 불빛을 받아 교회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으며, 서쪽 바로 밑에는 특별 행사 시 예포를 발사하는 두 대의 포가 놓여있다.

리카비토스 언덕을 오르기 위해서는 자동차, 케이블카, 도보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편이라도 아껴야 하는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도보만큼 좋은 것이 없지만 한여름 태양이 내리쬐는 한 낮에는 중간에 오르다 하산하는 경우가 많으니 30분마다 운행되는 케이블카를 타고 언덕 정상에 오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러나 해질 무렵에는 도보 관광이 한결 수월해지니 도보로 40분정도 산책삼아 걸어볼만 하다.

○케이블카(Teleferic)

가격: 왕복 €4

운행시간: 오전 9시-오후 11시

○가는 방법 및 탑승위치:

SYNTAGMA에서 도보로 30분 소요되며, Ploutarhou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케이블카 탑승 입구가 위치해 있다.



8. 참고사항 -그리스 유적지 및 박물관의 무료입장

그리스는 외국인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 및 자국민들에게 그리스 문화와 문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관광 비수기인 11월-다음 해 3월 사이의 매주 일요일, 4월-6월 사이의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 주요 유적지 및 국립 박물관 등에 대해 무료입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그리스 여행 시 참고하기 바란다.

*11월-다음 해 3월 사이 : 매주 일요일

*4-6월 사이 : 매월 첫 번째 일요일

: 첫 번째 일요일이 그리스 공휴일인 경우 두 번째 일요일에 무료 입장

*그리스 공식 공휴일

·3월6일 - Melina Merkouris(전 문화부 장관)기념일

·4월 18일 - 국제 기념물(monument)의 날

·5월 18일 - 국제 박물관의 날

·6월 5일 -국제 환경의 날

9. 아테네 지하철 노선도



